



## 청정 동해, 불심도 맑아라

### 강원 강릉·동해·삼척

**# 강릉** 울곡 신사임당 허균 김시습을 배출한 문화의 도시 강릉. 전통문화 도시답게 강릉은 다른 종교보다 불교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사실 강릉은 불심이 그리 강한편은 아니다. 기복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고정 신도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로는 등명락가사가 꼽힌다. 등명락가사는 청자로 조성한 오백나한을 모신 관음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활발한 포교·복지 활동으로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강릉불교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생회, 청년회 등 7개의 신도회가 활발한 실행을 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경찰서 군부대 교도소 등에 대한 후원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매달 방생법회를 열고 있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합창단을 조직, 오는 12월 불우이웃돕기를 겸한 장단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등명락가사 다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성원사다. 성원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수련대회를 여는 한편, 강릉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여개 도시에 실행단체인 '갈양회'를 조직해 실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스님들을

위한 선원을 건립, 내년부터 문을 열고 수행포도 다지기에 나선다.

또 성원사는 도심과 떨어져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에 포교당(성정사)을 두고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학생회 법회와 함께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불교교양대학과 시민선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전 성정사에 성원유치원을 열고 유아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등명락가사, 법왕사와 함께 강릉의 3대 사찰로 꼽히는 보현사 역시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으로 지역 포교에 일조하고 있다. 가족법회를 열고 있는 보현사는 초하루법회를 가족법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행구도회를 결성해 생활 속 실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건립중인 지장선원이 완공되면 대중선방으로 활용,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된다.

이밖에도 관음사는 강릉불교대학과 불교유치원을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고, 과거에 비해 활동이 주춤한 백운사는 청·장년 법회를 설치해 포교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다지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강릉의 사찰 수가 80여 곳에 이르는데도, 사암련 활동을 하는 사람은 2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등 활동이 미약하다. 강릉불교가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 강릉, 연령별 신도회 활동 활발 동해, 기복불교 탈피 실행 활기 출·재가 망라 삼척사암련 창립

**# 동해** 동해에는 지금 세 바람이 불고 있다. 기복에 치우쳐 있던 불자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올바른 실행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전통사찰인 삼화사는 동해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화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다른 사찰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을 정도다.

동해불교의 변화를 몰고 온 삼화사 불교대학은 기본·전문반 외에 경전연구반으로 편성돼 있다. 이밖에도 삼화사는 신도회, 보현회(자원봉사단체), 합창단, 거사회, 학생회 등이 각 단계별로 자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바라밀유치원을 운영 어린이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템플스테이를 운영, 1천여 명이 삼화사를 거쳐 갔다. 최근에는 불교문화에도 관심을 두고 각종 전시회를 여는 가 하면, 올해 처음으로 수목재를 봉행했다.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복지에도 뛰어들다.

강릉불교에는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것이 있다. 바로 각 사찰 신도들의 모인 신도단체연합회다. 20년 역사의 신도단체연합회는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꾸준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사암련연합회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



강릉 등명락가사 신도들이 10월 말 성지순례차 해인사를 참배하고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강원 영동지역의 대표적 포교도량인 해인사 등명락가사는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다. 그러나 사암련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동해는 최근 들어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종교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동해불교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결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 # 삼척

삼척은 전형적인 농·어업 형태를 띠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농·어업의 하향세가 뚜렷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아무리 봐도 불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게다가 불자들의 의식수준도 낮고, 사찰들의 활동도 미약하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그런 삼척에 최근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불교를 활성화시켜보

자고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난 10월 사암련연합회를 창립한 것이다.

삼척 사암련은 삼척대교수불자회와 신도단체연합회까지 포함된 출·재가를 망라한 지역불교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불교 발전에 출·재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암련은 어업이 지역경제기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내년 출어가 때부터 용왕대제를 여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관공서의 불자회 창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영은사가 상호결성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을 계획이고, 삼척사는 불교유치원으로, 천은사는 기존의 신도조직으로 지역불교 활성화를 뒷받침할 태세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신도들과 격의없이 대화

법안 스님 (강릉 백운사 주지)

법안 스님은 38년간 백운사를 지키며 강릉불교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전을 읽으며 참회기도를 하는 자비도량법회기도를 매년 빠뜨리지 않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피아노를 치며 신도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치는 등 숭선수범하는 자세로 신도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신도들과 함께 어울리길 좋아하며, 시도 때도 없는 신도들의 상담에도 기꺼이 응한다.

지역 노인들에게 염불기도처를 만들어주고, 학생과 청년법회를 신설해 젊은층 포교에도 나서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강릉불교발전의 핵심

청우 스님 (강릉 등명락가사 주지·강릉사암련연합회장)

청우 스님이 강릉불교의 핵심이라는데 이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80년 주지를 맡은 이래 14개동의 전각을 세우고 다양한 포교활동을 통해 오늘의 강릉불교를 일궈냈다. 5년째 사암련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릉경찰서에 경승실을 만들고,

강릉교도소에 법당을 설치하는 등 실행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불우이웃, 교도소, 경찰서, 군부대 등에 정기적인 후원도 하고 있다.

### 불사현장서 굿은일 함께 해

정암 스님 (강릉 법왕사 주지)

35년간 강릉에서 포교활동을 했다. 대웅전, 전불전, 세심선원, 반야원 등 10여 개의 전각을 세우고 오늘의 법왕사를 일궈냈다. 일꾼들과 함께 직접 불사현장에 동참했을 정도로 범방사 곳곳엔 정암 스님의 손때가 묻어 있다.

정암 스님은 10여년 넘게 강릉사암련연합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일했다.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강릉불교를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다.

### 실행문화 바꾸기 새바람

학명 스님 (강릉 보현사 주지)

3년 전 보현사 주지로 부임. 실행문화 바꾸기에 나서며 등 강릉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학명 스님은 신도들이 기복에서 벗어나 불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

강릉경찰서 경승과 강릉교도소 교화위원을 맡아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후원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보현사가 위치한 선산면의 단체장 모임인 '명성회' 회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모범적인 지역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 출소자 포교 15년 헌신

동화 스님 (동해 감추사 주지)

원주 원경사 주지 시절 출소자에게 직장을 얻어주고 합동결혼식도 해주는 등 15년 간 출소자 포교로 유명했던 동화 스님. 2002년 감추사로 온 이후 학생·청년 수련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명 명령 자립복지회'를 설립하고 강릉 등 명해수육장에 불교회관을 세워 지역 포교에 나섰다. 내년부턴 불교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여름철에 수련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 라오스 세안사와 자매결연

주경 스님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포교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확고하다. 강릉에 온 지 10년 만에 성원사를 강릉불교의 대표적인 포교사찰로 가꿨다. 시내에도 포교당을 설치, 유치원과 불교교양대학을 열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포교에 대한 신념 못지않게 계

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라오스의 세안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국립방, 사법연수원, 사관학교 등지에서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는 등 한 달에 평균 7-8차례 외부 초청 법문을 할 정도로 바쁘다.

### 가족법회 운영...정법 전파

법장 스님 (삼척 감로사 주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법장 스님은 감로사 주지를 맡은 5년 동안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왔다. 그 결과 신도들은 정법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불교를 제대로 배우려는 젊은 신도들도 늘었다. 거사법회를 만들고 가족법회도 만들어 생활불교를 활성화하고 있다. 인근 경포당과 불우학생을 지원하는 등 지역민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절 바로 아래에 무료 독거노인시설을 짓고, 어린이와 학생법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문화·교육·복지 도량 일괄

원명 스님 (동해 삼화사 주지·동해사암련연합회장)

5년 만에 삼화사를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이 없는 강원 최고의 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시내에 불교유치원을 설립하고, 분원을 겸된 신도회를 하나로 묶고, 템플스테이 등 각종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삼화사를 종합도량으로 발돋움시키면서 동해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원명 스님은 교육을 통해 기복에 치우친 신도들에게 올바른 불교를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명무실한 사암련 재건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 삼척 대표 사찰로 발돋움

행담 스님 (삼척 영은사 주지)

일주문을 세우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전각을 보수하는 등 초라했던 영은사를 주지 부임 후 4년 만에 삼척의 대표사찰로 발돋움시켰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는 활동으로 삼척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삼척불교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0월 창립된 사암련연합회를 발족시킨 주역으로, 사암련 기획실장을 맡아 삼척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02년 봉 영은사 바로 인근 산불 당시, 소방관도 포기한 영은사를 화마에서 구해낸 일화는 삼척에서 유명하다.

##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청주 두진빌라·안동 현대아파트·목동 우성아파트·일산 후곡아파트·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 현재 전국 각 시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